

# 韓銀 통계 믿어도 되나?

## 지난달 음식·숙박업 부도율 '제로' 어음 미발행 영세업체 포함 안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어음부도를 통계에서 음식·숙박업종의 부도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최근 수년간 극심한 내수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인 음식·숙박업에서 부도업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예상밖이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작년 7월과 9월에도 부도업체수 '제로(0)'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로는 부도업체수가 모두 19개에 불과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전체 부도업체수는 2천529개로 이 가운데 서비스업이 1천1개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지만 숙박·음식업은 19개로 0.8%에 불과했다. 이처럼 음식·숙박업의 부도업체 수가 극히 미미한 것은 음식·숙박업의 대부분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이라는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의 어음부도를 통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에 당좌거래를 하면서 어음을 발행해

야 하지만 음식·숙박업체 가운데 어음을 발행할 만큼 매출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숙박업종의 부도업체 수가 '제로'라는 통계는 실제 음식·숙박업종의 경기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수치일 수 있다.

이처럼 어음부도를 통계가 영세 자영업체를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기업도 어음부도를 통계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국

면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들어 대기업 부도업체는 단 1개도 없었으며 지난해는 2개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당좌거래 액수가 큰 대기업 부도발생이 가뭄에 콩 나듯 함에 따라 어음부도율은 3월의 경우 0.01%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따라서 어음부도율과 부도업체 수에 관한 통계는 사실상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체를 뺀 중견기업 통계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엔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갑)는 그동안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중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될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이 안될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주고, 이용자가 통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접수해도 상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 개미들의 귀환...주가 또 최고치

<코스피 1544.35>

## 올들어 개인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수 상승에 한 몫 금등국면 '묻지마 투자'는 금물...증권사 잇단 전망 수정

코스피지수가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면서 증시 전망을 밝힌 증권사들은 지수 전망치를 수정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으며, 한동안 시장을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그러나 금등세를 보이는 시장이더라도 이른바 '묻지마 투자'보다는 실적 등에 근거한 전략적인 투자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

◇개인투자자들 시장으로 회귀 = 최근 시장 주변에서는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최근 4년간 23조원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이탈이 마무리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개인들의 유동성 유출입을 보여주는 실적 예탁금이 오히려 증가세로 반전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객예탁금 증액에 2일전 개인 순매수를 합한 뒤 미수금과 신용잔고 증가분을 제외한 개인들의 실제 예탁금 증액은 지난 2

월 5천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지난 1월 1조1천억원이 유입되고 3월과 4월 4천여억원씩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들의 연간 매매도 2002년 한차례 순매수세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순매도세였으나 올해 들어 지난 주말까지 227억원 소폭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금등국면 투자 부담, "주도주 부상 내수주가 대안" = 이처럼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최근 금등으로 주가가 상승, 가격 부담에 부딪혀 막상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사들 빛나던 전망에 수정 진땀 = 4월 들어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이 빛나던 전망치를 수정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23일에도 코스피지수는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 장중 1,550선을 넘어선 뒤 전 거래일보다 11.27포인트(0.74%) 오른 1,544.35로 마쳐 사상최고기록을 다시 썼다. 그러나 3월 말 기준으로 대우·우리투자·대신·대한투자 등의 증권사들은 코스피지수가 4월에 최대 1,520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2·4분기 조정론'을 고수해온 대신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은 코스피지수가 4월에 1,500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변경하거나 전망치 수정을 발표하는 증권사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2·4분기 지수 전망치를 1,710까지 상향 조정했다. 정필수기자 bungy@

# 주택대출 4개월 연속 감소

## 5개銀, 대출 잔액 3월말보다 1,320억 줄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넉달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재개할 기미를 보이는 데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은행권 전체 주택대출이 조만간 사상 첫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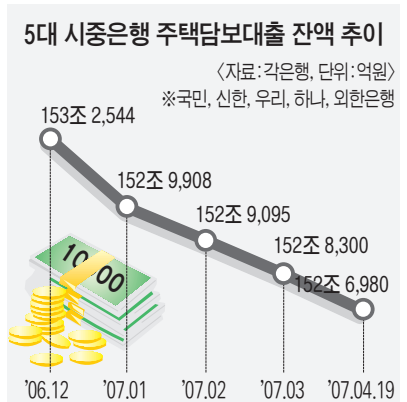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19일 현재 152조6천980억원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1천320억원 줄었다.

월중 감소폭이 지난달과 2월 한달간 감소폭인 785억원과 823억원을 웃돌고 있다.

하나은행이 111억원 늘었지만 우리은행이 781억원 줄고 국민은행도 472억원 감소하는 등 나머지 은행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은 작년 12월 한달새 1조5천569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올 들어서는 넉달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11 대책 등 올들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데다 은행들이 대출 자제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공시가격 6억원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대출상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대출 시장의 냉각기가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중부세 회피용 매물 증가로 전주대비 0.07% 떨어져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지난 17일 두달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며 대출금리가 다시 꺾일 기미를 보이는 점도 대출 감소세를 부추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로체 어드밴스' 시판

기아차가 23일 중형차 최초로 리어랩톱,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적용하고 엔진성능까지 대폭 개선한 '로체 어드밴스'를 선보였다. 차량가격은 기술린 모델 1천541만~2천642만원, 디젤모델 1천997만~2천482만원, 렌터카·장여우용 모델 1천185만~1천794만원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 수입 재개 美 쇠고기 인천공항 도착

## 농림부, 뱃조각 검출땐 해당 박스만 반송 조치

작년 10월~12월에 걸쳐 뱃조각 검출로 세 차례 전량 반송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년5개월만에 사실상 재개됐다.

23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미국육류수출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4.5이 이날 오전 8시25분 대한항공 화물기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병동상대로 들어온 이 쇠고기는 캔자스주 아칸소시에 작업장을 둔 '크릭스톤 팜스'사가 수출하고 국내 육류 수입업체 '네르프'사가 수입한 것이다.

수입업체가 공항에서 물량을 인수해 검역원 인선지인 영종도 축산물 검역창고로 이동한 뒤 검사준비에 걸리는 시간

만약 검사 결과 뱃조각이 발견돼도 이번 검역부터는 지난달 초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대로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한다. 따라서 전체 박스에서 뱃조각이 모두 검출되지 않는 한, 이번 수입분은 양에 관계없이 일부라도 검역을 통과해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발병으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이 약 3년5개월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검사를 통과한 쇠고기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을 받은 뒤 관세를 물고 통관절차를 마친다. 이후 유통방법과 일정은 전적으로 해당 수입업체가 결정한다.

이번 수입분 4.5은 중간도매상들에 '샘플용' 성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식용유 시장 포도씨유 뜬다

## 지난해 5배 성장...올리브유는 주춤

식용유 시장에 해상같이 등장했던 올리브유가 주춤하자 포도씨유·카놀라유 등 다른 고급기름이 뜨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올리브유 시장이 포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업체들이 대신 포도씨유를 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유채에서 추출한 카놀라유를 들고 나왔다.

올리브유는 AC닐슨 조사에서 지난 2003년 시장규모가 1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522억원에서 2005년 986억원으로 가파르게 성장, 같은 해 690억원을 차지한 콩기름(대두유)를 제치고 가정용 식용유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천2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올해도 기껏해야 1천1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업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신 포도씨유 시장이 지난 2005년 81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02억원으로 5배로 확대됐고 올해는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불포화지방산이나 비타민E 등이 있어서 노화와 성인병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지만 샐러드 드레싱 용이로 가격이 0.9에 1만원선으로 콩기름 2천~2천500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요리 용으로는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를 제안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연합뉴스

# 大 法 "경매정보 제공도 중개행위"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경매 알선 업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가 예상 밖의 손해를 본 김씨(49)씨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경매 정보 제공도 중개 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5월경 경매 알선 업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믿고 12억3천여만원에 서울 강남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업체가 제공한 정보에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었고, 일괄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김씨는 뒤늦게 건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10억2천여만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결국 낙찰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를 포기, 보증금 1억2천300만원을 손해본 뒤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등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매정보 제공·조언이 중개업자의 중개 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실질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알선'과 전혀 다를 바 없고 다만 목적물에 차이가 날 뿐이므로 중개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집값 떨어져도 주택대출 규제 완화 없다"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밝혀

집값 하락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3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직은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해서 연착륙 해야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시기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집값에

비해 대출을 90%까지 해주지만 우리는 50% 수준에서 해주고 있어 그만큼 손실이나 가격하락에 대비할 능력이 커져 있다"면서 "그 동안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갖춰진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성이 하방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집값 급락을 전제로 가계부실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